

창작레지던시 4기 입주작가 보고전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27일까지 7인 작가 '시선의 번역'展 개최

(재)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은 창작스튜디오 4기 레지던시 7인의 입주작가 결과 보고전인 '시선의 번역'展을 오는 2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창작스튜디오 4기 입주작가는 고희찬, 김수나, 박수지, 서수인, 서완호, 여인영, 정철규 등 총 7명이다.

이에 따르면 '시선의 번역'展은 어떤 시점에서 대상의 영역으로 바뀌는 관점 즉, 시선에 착안해 작가의 내재된 의식 속에서 잊힌 개인적 기억과 감정을 환기시킨다. 입주작가들이 일상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 맺으며 생성된 다양한 기억들을 작품으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감각적 요소들로 표현되고 번역된 시선의 기억들은 작가마다 다르게 연출된 공간과 매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고효찬 작가는 사진과 영상으로 현장을 기록하고 조사하는 작가로서 이번 전시 주제인 'DORORI'는 부안군 동중리 마을에서 2003년도에 사라진 '집대하나씨'의 실종 사건과 그 후 18년간의 회귀 과정을 다룬다.

김수나 작가는 '풍경의 층'이라는 주제로 실산의 풍경과 눈발의 이미지를 이용한 공간설치 작업이다. 겹겹이 쌓인 실산 이미지는 부분적으로 찢어지면서 거친 종이의 질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뒷면에 있는 다른 이미지와 뒤섞이며 하나의 추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박수지 작가의 '깨진 언어 사이로(Between broken languages)' 작업은 자신의 작업 태



(재)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은 창작스튜디오 4기 레지던시 7인의 입주작가 결과보고전인 '시선의 번역'展을 오는 27일까지 개최한다.

블 위에 놓인 파편들처럼 흩어진 그들의 단어를 서사적 표현으로 작업해 그들의 깨진 언어를 깨진 언어로 이야기하고자 했다. 서수인 작가는 '남겨지는 힘표로 물감이 흐르고 중첩되며 사라지고 투영되는 것을 통해 이 순간에도 남아있고 있음을 표현했다. 서완호 작가는 '그러다고 달라지는 건 없

겠지' 작품을 통해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개발 논리에 의해 사라지고 버려지는 도시의 풍경들을 보면서 슬픔에 따라 평가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했다.

여인영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두점의 영상과 설치 작업으로 구성된 '소금은 짜다(Salt to tasty)'를 통해 이 이야기들을 펄 바르고 빨아들이고 펼쳐 놓으며 주재료인 소금과 느슨하게 연결시킨다.

정철규 작가는 '브라더 양복점-3호점'을 열어 소수자들을 전담 인터뷰로 만나 대화 나누며 그 대화의 언저리와 중심, 심층부에 깔려 있는 이야기를 이미지와 글로 지어주는 작품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시기간 내에 4기 입주작가 7인의 공개비평과 오픈스튜디오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진 팔복예술공장 창작기획팀 차장은 "2022년 한 해를 여는 첫 전시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과 문화예술인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길 바라며, 전시된 각각의 작품들이 보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시선으로 생성되고 관람객들의 기억 속에서도 새롭게 번역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의 관람료는 무료이며, 사전 예약 없이 현장방문으로 전시 관람이 가능하다. 전시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팔복예술공장 창작기획팀(063-212-8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은 겨울 방학을 맞아 한국민속촌과 함께 국기 태권도 활성화 위한 공동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민속촌서 즐기는 '힐링태권체조'

태권도진흥재단, 국기 태권도 활성화 위한 공동 이벤트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영환)은 겨울 방학을 맞아 한국민속촌과 함께 국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공동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태권도원 인기 콘텐츠인 '힐링태권체조' 체험을 하는 것으로 2월 5일부터 20일까지 매 주말(토, 일) 1일 2회(11시 30분, 14시 30분) 한국민속촌 유스호텔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힐링태권체조'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재미있게 태권도 기본동작과 발차기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누구나 쉽게 태권도를 즐길 수 있으며 이번 체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태권도원 방문 할인권을 제공하는 등 태권도와 태권도원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한국민속촌'을 검색 후 '예매' 창을 통해 할 수 있고 매회 당 60명을 선착순 접수한다. 단, '백신패스' 확인자에 한해 입장할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발열 측정 등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안전한 힐링태권체조를 진행할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영환 이사장은 "한국민속촌 방문객에게도 태권도원 대표 콘텐츠를 선보일 기회가 있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한국민속촌에서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무예 '태권도'가 방문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성기자

부안 석정문학관,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선정

지역 문인 일자리 창출 통한 활성화 기대

(재)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 이하 재단)에서 운영하는 석정문학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사)한국문화관광협회에서 진행하는 '2022년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부안군 관내에서 활동 중인 문학 작가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창작 여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지역민의 문학에 대한 관심도 증진과 예술 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학관에서 진행되는 전시, 교육, 행사 등을 통해 문학관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문화 예술에 대한 문화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등 문학관 활성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진하게 된다.

재단은 2월 중으로 상주작가 공개 모집을 통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2022년 석정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선발된 작가(1명)에게는 표준계약서 작성과 인건비

지급(월 200만원, 세전), 4대보험 가입, 사무실 등을 지원한다. 상주작가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2월 7일 공개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공존의 인간학' 제7집 발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7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9년 2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 2회씩 발간, 이번에 제7집이 출간됐다. 2021년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존의 인간학'은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공동체'와 관련한 세계적 수준의 담론 선도를 지향하며, 탈 유교 사회의 인간학과 미래공동체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제7집에서는 '근현대 문학적 상상력과 중국 문화에 내재된 인간성'이라는 주제로 기획됐다. 또한 미래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와 관련해 국내외 전문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했다. 이번 제7집에는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5편 등 총 8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현재 '공존의 인간학' 8집 발간(2022년 7월)을 목표로 다양한 학문 성과를 6월 10일까지 모집 중이다. 수록된 논문은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https://www.jjac.kr/ksk>)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장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